

개미는 '삼성전자', 外人은 'SK하이닉스'... 엇갈린 투심

개인투자자-外人, 매수·매도 정반대
外人 순매수 상위 종목, 22.70% ↑

개인투자자 5개 종목, 평균 0.004% ↑
국내증시 흐름 부진에 이탈 양상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투심이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반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주목하면서 투자 주체별 수익률 희비도 엇갈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9월 23일~10월 23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5조4374억원 순매수하면서 가장 많이 사들였다. 반면, 같은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는 1조4387억원 순매도하면서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 대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이 갈린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비슷한 흐름을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놀란 사람들' 이미지.

보였으나 개미들과는 상반됐다.. 동일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SK하이닉스(1조5234억원)이며,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5조9008억원)다. 투자 주체별로 선호 종목뿐만 아니라 순매수 규모와 순매도 규모도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9월 3일부터 이

달 23일까지 삼성전자를 31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역대 가장 기록을 경신했다. 31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1조9597억원 팔아치웠으며, 주가는 20.56%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대장주로 코스피 흐름을 좌우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27.90%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로 평가되고 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증시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25%"라며 "시총 비중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 포함만 됐어도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수익률은 피할 수 있었던 셈"이라고 짚었다. 삼성전자만 제외해도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 부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들어 8월, 9월, 그리고 이달까지 약 세 달간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에서도 동학개미들과 희비가 엇갈렸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려아연,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5개 종목은 평균 22.70% 상승했다.

반면, 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5개는 삼성전자, 기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삼성전자우, 유한양행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이 종목들의 평균 주가 상

승률은 0.004%에 그쳤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개미들이 압도적으로 사들인 삼성전자는 6.19% 하락했고, 2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기아는 11.93%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

또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 역시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내 증시 거래대금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59.67%로 전년 동기 67.57%보다 감소했다. '검은 월요일'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투심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개인의 투심 악화로 자금이 해외로 이탈 중이고, 이에 따라 외국인 수급의 파급력도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통과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부 한도와 세제 혜택이 강화되고, 이는 개인 수급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이복현, 교체 vs 연임... 국감 후 거취 '주목' 자산운용사 'ESG 위원회', 실질적 운용 저조

(금융감독원장)

국감 막바지·尹 임기 절반 지나
업계 "통상적으로 임기 못채워"
대통령 의중 반영에 '연임' 관측도

22대 국회 첫 국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정치권에선 재임기간이 2년 넘은 차관급 인사들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취임 3년차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도 눈길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다.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취임했으니, 내달 11일이면 임기 절반이 지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정권이 임명한 첫 번째 금감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 원장도 이번 국감 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장을 지낸 15명 중 임기 3년을 온전히 지낸 인물은 5대 윤증현·7대 김종창·13대 윤석열 전 원장뿐이고, 이 중 정권이 임명한 첫 번째 금감원장으로 3년 임기를 마친 사람은 김종창 전 원장이 유일하다. 16대 금감원장으로 2022년 6월 취임한 이 원장이 임기를 마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시점은 내년 6월이다.

특히 이 원장의 거취는 국감이 열릴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정치권과 업계의 이목을 끄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 원장이 특수통 검사 출신이자 이른바 '윤석열 사단' 막내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원장은 '출마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혹 정치에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는 의원의 질문에 이 원장은 "제가 세 번째 국정감사인데 게

속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믿어 달라"며 선을 그었다.

올 상반기에는 이 원장이 선출직이 아닌 직제상 차관급이자 비선출직인 주 OECD 대사나 주 UN 대사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설도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 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을 넘어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직접 연임 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며, 역대 금감원장 중 연임한 사례도 아직 없다.

이명을 요구한 금감원 관계자는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지 않겠냐"며 "지금 추진하는 금융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려면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조직이자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의 장은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상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이에 금감원 측은 "원장 임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제도 개선·상법 개정 필요성 제기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활발히 운용되지 않고 있어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운용사 중 25개사가 ESG 관련 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기후리스크지침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역시 미흡하며, 금융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감축 목표를 설정한 운용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또 증권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26개 운용사 중 20개사가 총 264개·14조8495억원 규모의 ESG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나, ESG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전체 운용자산 중 ESG 펀드 규모는 1.0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대상 운용사들이 모두 스투어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은 저조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포함한 4개 운용사는 분석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관여 활동을 이행하지 않았다. 운용사들은 평균적으로 대상 기업당 1.16회의 관여 활동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주로 서한 발송 및 비공개 대화의 형식적 방법에 그쳤으며, 공개대화, 주주권행사 등 공개적인 방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신장식 의원은 국내 주식 시장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ESG 경영과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이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이와 관련한 질적 판단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운용사가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스투어십 코드를 제외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리스크관리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기후위험에 대한 측정, 공시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투운용, 'ETF 연금투자 가이드북' 공개

ISA·연금계좌 내 ETF 활용 서술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최신 정보를 담은 '2024 ACE 상장지수펀드(ETF) 연금투자 가이드북'을 공개했다.

24일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연금투자 가이드북을 업데이트한 버전(판)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설명과 연금계좌 내 ETF 활용에 따른 장점을 더 자세히 담았다.

'ISA'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해 운용할 수 있는 절세계좌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외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2030세대 연금 투자자부터 인출을 앞둔 중장년 연금 투자자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마케팅담당은 "ETF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분산투자에 따른 장점 덕분에 연금 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특히 해외주식 ETF의 경우 연금 계좌에서는 직접 투자할 수 없는 해외주식을 편입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연금 투자 시 활용할 수 있는 'ACE ETF 라인업' 소개도 보완됐다.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ACE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ETF와 ACE 미국 나스닥100 ETF 등 선별된 33종의 ETF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3분기 주식관련사채 행사금액 4507억

전분기 대비 66.1% ↓... 건수도 감소

올해 3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금액과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식관련사채 행사금액은 450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6.1% 줄었다. 같은 기간 행사건수도 693건으로 44.5% 감소했다.

주식관련사채는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 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행사가액·행사기간 등)으로 발행사 또는 타 회사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종류별로 행사금액을 보면 CB가 3969억원으로 전분기(1조1112억원) 보다 64.3% 줄었다. EB는 215억원으로 88.4%, BW는 323억원으로 4.4% 감소했다.

권리행사 건수는 CB 428건으로 전분기(726건) 대비 41% 감소했다. EB는 74.2% 감소한 25건, BW는 43.7% 줄은 240건이었다. /원관희 기자